

# 남녀 대학생의 예상 수유방법에 따른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과 태도 및 식습관의 비교

## Nutrition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and Food Habits in Relation to the Expected Infant Feeding Method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현 화 진 · 이 조 윤  
중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Hyun, Wha Jin · Lee, Jo Yun  
Dept. of Food and Nutrition, Jungbu Univ.

---

### Abstract

In order to provide the basic data on an education program for successful breast-feeding, the nutrition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nfant feeding decision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investigated.

The majority of students had correct knowledge of the maternal-infant bonding through breast-feeding and knew more about baby-centered benefits than about mother-centered benefits of breast-feed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were not so positive as expected, and male students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than female students had. 54.8% of students answered to practice breast-feeding longer than 3 months. Nutrition knowledge scores and attitude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breast-feeding decision group than in the formula-feeding decision group. The students residing in a rural community decided breast-feeding significantly more than the students residing in an urban community.

It was concluded that nutrition knowledge about the breast-feeding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eciding infant feeding method. In order to increase breast-feeding decision rates among college students, the education program may need to focus on understanding of correct nutrition knowledge about the benefits of breast-feeding. Also it would be important to have male students participated in education program.

### I. 서론

모유의 영양학적, 면역학적,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서의 장점은 잘 알려져 있어 모유영양이 인공영양에 비하여 우수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수유부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규명되어 왔다.

1971년에 생후 4개월까지의 모유수유율이

10%에 불과했던 미국에서는 최근 모유수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Fomon, 1987),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모유영양 실태는 1970년대 모유영양의 비율이 도시에서 51.7%, 농촌에서 82.0%였는데 비해 두 지역 모두 모유영양의 실시가 계속 감소하여 1990년대에 와서는 각 지역에서 22.7%와 58.8%로 낮아졌다(송요숙, 1991). 모유수유의 현저한 감소에 대처하기 위

하여는 모유영양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첫째, 영유아의 수유방법을 선택하고 둘째, 모유영양의 실천기간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다양한 인사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영아의 영양공급법에 관한 지역적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왔으며, 아울러 이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보고들이 많이 있다(송요숙, 1991; 이연숙과 황계순, 1992; 노희경, 1994; 안홍석 등, 1995; 노희경, 1995). 여러 연구에서 수유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소득수준,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연령 및 직업, 영아의 출생시 체중, 출생순위, 성별 등이 보고되어 왔다. 이 중 어머니측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어머니들이 모유영양을 많이 실시한다는 미국의 결과(Fomon, 1987)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영양의 실시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었다(이연숙과 황계순, 1992; 노희경, 1994; 이철 등, 1995; 안홍석 등, 1995).

또한 어머니들이 수유방법을 선택한 시기를 보면 31.4%가 결혼전에 모유영양을 결정하여(안홍석 등, 1994) Tuttle과 Dewey(1994)와 James 등(1994)이 70% 내지 58%의 어머니가 임신전에 모유영양을 결정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므로, 여러 연구자들이 성인기 이전 청소년기의 학교 교과과정에서 모유영양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교육이 포함될 것을 제안하였다.

남편의 태도도 모유수유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는데 모유수유를 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한 경우 남편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정귀영과 이근, 1983) 모유수유 그룹에서 남편의 모유영양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다(안홍석 등, 1995). 따라서 모유영양을 권장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남편도 같이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들이며, 대학생들 대상으로는 남,녀 대학생의 모유수유와 인공수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김미경, 1990)가 조사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모유영양 선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하여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모유영양을 선택하는데 관여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곧 부모가 될 고학력 집단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예상 수유방법에 따른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과 태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식습관을 비교하여 모유영양의 선택을 높일 수 있는 영양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방법

충청남도 금산군 중부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1996년 4월 2일부터 4월 12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같은 학교의 남,녀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조사의 취지와 주의점을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설문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 바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 가능한 305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조사내용

#### 1) 일반환경조사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및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성별, 나이, 종교, 주거지, 가족형태, 그리고 조사대상자 자신의 영아기 수유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 2)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및 태도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은 김미경(1990)과 안홍석 등(1995)이 사용한 문항 중 10개의 문항을 선정, 보완하여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답하도록

하였고 맞은 답 한 항목에 1점씩을 주어 총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그렇다'와 '아니다'에 답한 경우는 '모르겠다'에 답한 경우에 비해 인지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에 답한 수를 합하여 인지된 지식을 계산하였다.

모유영양에 대한 태도는 김미경(1990), Robinson 등(1994), 노희경(1995)이 사용한 문항 중 6개의 문항을 선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용한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을 혼합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답하도록 하였다. 태도의 평가는 긍정적인 답에 3점, '모르겠다'에 2점, 부정적인 답에 1점씩을 주어 총점수가 18점(매우 긍정적인 태도)에서 6점(매우 부정적인 태도) 사이에 오도록 하였다.

또한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을 얻는 매체와 선택하고자 하는 예상 수유방법을 조사하였다.

3) 식습관

대상자들의 식습관에 관한 조사는 대한영양사회에서 건강을 위한 영양진단용으로 개발한 태도조사 프로그램(엄영남 등, 1992)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22문항을 선정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식사 규칙성, 균형도,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건강을 위한 식생활로 분류하여 Likert-type scale을 사용하여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단계로 답하게 하였으며, 각 문항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5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에 1점을 주어 평가하였다. 빈도를 묻는 문항에는 자신에 해당하는 빈도를 1주일에 '1-2회' '3-5회' '6-7회'로 답하게 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3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에 1점을 주어 평가하였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및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도 5단계 Likert-type scale로 조사하였다.

3. 통계처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문항별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및 태도,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매체에 대하여는 백분율을 구하였고,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점수, 그리고 식습관 점수에 대하여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조사항목의 남녀별 차이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상 수유방법의 비교는  $\chi^2$ -test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예상 수유방법에 따른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및 태도, 그리고 식습관 점수의 비교는 t-test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통계처리에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 305명 중 남자는 152명, 여자는 153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거의 같았고, 나이는 18세 부터 27세 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나 20세에서 22세 까지의 연령층이 약 40%를 이루고 있었다. 주성장지가 도시인 학생과 핵가족 형태의 가정을 가진 학생이 각각 88.2%씩으로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현재 자택에 거주하면서 통학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조사대상자 자신의 영아기 수유방법에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성별	남	152	49.8
	여	153	50.2
나이	18-19	80	26.2
	20-22	121	39.7
	23-25	82	26.9
	26-27	22	7.2
종교	기독교	69	22.6
	불교	62	20.3
	천주교	40	13.1
	기타·없음	134	43.9
주거지	도시	269	88.2
	농촌	36	11.8
주거형태	자택	174	57.0
	기숙사	9	3.0
	자취	98	32.1
	하숙	12	3.9
	친척집	12	3.9
가족형태	핵가족	269	88.2
	확대가족	36	11.8
영아기 수유방법	모유영양	251	82.3
	인공영양	54	17.7

대하여는 모유영양으로 답한 경우가 82.3%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1974년에서 1978년 사이 우리나라의 모유영양율이 농촌에서 82%, 도시에서 51.7%로 보고된 것(송요숙, 1991)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다.

## 2.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을 묻는 10가지 문항에 대한 남,녀별 정답 및 오답자의 비율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전체 정답자의 비율에서 가장 높은 정답율을 나타낸 문항은 '모유를 먹는 아기는 인공유를 먹는 아기 보다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좋다'로 94.1%였으며, '모유 영양아가 인공영양아에 비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89.8%, '모유의 양과 질은 어머니 식사에 영향을 받는다' 85.2%의 순서였다. 반면,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인 항목은 '모유를 먹는 아기는 인공유를 먹는 아기보다 빈혈이나 비타민 결핍이 적다'로 6.6%였으

며, '모유를 먹이면 일정기간 동안 피임효과가 있다' 14.8%, '초유는 면역물질이 있으므로 아기에 먹이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모유를 분유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15.4%의 순서였다. '모유영양이 어머니와 아기의 유대관계를 좋게 한다'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정답율을 나타낸 것은 여고생(이민숙, 1984), 남녀 대학생(김미경, 1990), 분만전 산모(안홍석 등, 1995), 그리고 24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이연숙과 황계순, 1992)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는 결과이며, 심리적 유대감과 정서적 만족감이 모유영양에 있어서의 주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인식이 이미 청소년기 부터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별 정답자 비율은 10개 문항 중 8개 문항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6개 문항에서 여자의 정답자 비율이 높고 4개 문항에서 남자의 정답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유를 원하는 여성은 누구나 수유를 할 수 있다'와 '모유 영양아가 인공 영양

<표 2>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문 항	%								$\chi^2$ 값
	남		여		계				
	정답	오답	정답	오답	정답	오답			
1. 모유를 먹는 아기는 인공유를 먹는 아기 보다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좋다	92.1	7.9	96.1	3.9	94.1	5.9	2.167	NS	
2. 모유의 양과 질은 어머니 식사에 영향을 받는다	81.6	18.4	88.9	11.1	85.2	14.8	3.239	NS	
3. 모유를 먹이면 임신전 어머니의 신체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을 촉진해 준다	45.4	54.6	35.9	64.1	40.7	59.3	2.820	NS	
4. 모유를 먹이면 일정기간 동안 피임효과가 있다	16.4	83.7	13.1	86.9	14.8	85.2	0.691	NS	
5. 모유를 먹는 아기는 인공유를 먹는 아기 보다 빈혈이나 비타민 결핍이 적다	5.9	94.1	7.2	92.8	6.6	93.4	0.200	NS	
6. 수유를 원하는 여성은 누구나 수유를 할 수 있다	34.2	65.8	47.1	52.9	40.7	59.3	5.217	p=0.0224	
7. 초유는 면역물질이 많으므로 아기에 먹이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모유를 분유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16.4	83.6	14.4	85.6	15.4	84.6	0.250	NS	
8. 모유 영양아가 인공 영양아에 비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85.5	14.5	94.1	5.9	89.8	10.2	6.164	p=0.0130	
9. 인공 영양아가 모유 영양아 보다 비만이 되기 쉽다	48.0	52.0	43.1	56.9	45.6	54.4	0.735	NS	
10. 모유 영양이 인공 영양 보다 두뇌발달에 좋다	75.0	25.0	77.1	22.9	76.1	23.9	0.189	NS	

NS : Not significant at  $\alpha=0.05$ .

아에 비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의 2개 항목에서만 여자의 정답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대학생의 식생활에 관한 영양지식을 평가한 연구결과에서는 여학생의 정답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김화영, 1984; 김기남과 이경신, 1996)고 보고되는 반면, 본 연구에서 10개 문항 중 2개의 문항에서만 여학생의 정답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이 주로 영양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은 별로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유영양의 아기쪽 장점에 대한 문항(8,9,10항)은 비교적 정답율이 높는데 비해 어머니쪽 장점에 대한 문항(3,4항)의 정답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김미경(1990)의 결과와도 일치되는데, 이로 미루어 모유영양에 관한 교육 내용에서 아기쪽의 장점은 물론 어머니 쪽의 장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Novotny등(1994)과 Tuttle와 Dewey(1994)는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결정하게된 가장 큰 요인이 아기의 건강 때문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안홍석 등(1995)은 '수유를 하면 몸매가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 일수록 모유영양을 성공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 3. 모유영양에 대한 태도

모유영양에 대한 태도를 묻는 6개 문항에 대한 남,녀별 응답비율을 <표 3>에 나타내었다. 문항은 조사대상자에게 자연스럽게 읽혀지도록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나 <표 3>에는 질문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과 관계없이 모유영양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모르겠다,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자의 비율에서 긍정적인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모유수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다'로 83.0%였다. 반면, '모유수유가 아기에게는 좋으나 엄마에게는 희생이다'와 '요즘은 인공영양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가슴을 노출해야 하는 모유수유를 할 필요가 없다'에서는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각각 60.0%와 55.4%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비슷한 문항에 대해 만 3세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희경(1994, 1995)의 연구결과 보다 낮은 비율이어서 대학생층에서 인공영양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어머니가 수유를 하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모유영양에 대한 태도

문항	남									여			계			x <sup>2</sup> 값	p			
	남			여			계			남			여					계		
	긍정	모름	부정	긍정	모름	부정	긍정	모름	부정	긍정	모름	부정	긍정	모름	부정			긍정	모름	부정
1. 요즘은 인공영양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가슴을 노출해야 하는 모유수유를 할 필요가 없다	63.2	25.0	11.8	47.7	22.9	29.4	55.4	23.9	20.7	14.821	p=0.0006									
2. 모유수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다	82.9	11.8	5.3	83.0	11.8	5.2	83.0	11.8	5.2	0.001	NS									
3. 모유수유가 아기에게는 좋으나 엄마에게는 희생이다	64.5	19.7	15.8	55.6	22.2	22.2	60.0	21.0	19.0	2.894	NS									
4. 모유수유는 전근대적이며 불편하고 부자연스럽다	75.7	15.8	8.6	67.3	17.0	15.7	71.5	16.4	12.1	4.008	NS									
5. 일반적으로 모유를 먹이는 것을 보면 좋은 인상을 갖는다	82.2	11.2	6.6	68.6	20.3	11.1	75.4	15.7	8.9	7.634	p=0.0220									
6. 언니나 주위의 젊은 어머니들이 모유를 먹여 키우는 것을 많이 보았다	44.7	18.4	36.8	48.4	11.1	40.5	46.6	14.8	38.7	3.244	NS									

NS : Not significant at  $\alpha=0.05$ .

<표 3>의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언니나 주위의 젊은 어머니들이 모유를 먹여주는 것을 많이 보았다'의 문항을 제외한 전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고, '요즘은 인공영양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가슴을 노출해야 하는 모유수유를 할 필요가 없다'와 '일반적으로 모유를 먹이는 것을 보면 좋은 인상을 갖는다'에서는 남학생의 긍정적 태도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미경(1990)도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모유수유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결과는 모유영양에서 남편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며, 모유영양에 대한 남편의 영향을 보고한 연구결과들(정귀영과 이근, 1983; 노희경, 1994)을 뒷받침한다. 노희경(1994)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할머니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지만 남편의 영향력도 크다고 하였고, 정귀영과 이근(1983)은 모유수유를 권장한 경우 남편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미국에서도 남편의 태도가 영아 수유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커다란 요인으로 보고되었다(Robinson 등, 1994; Novothy 등, 1994; James 등, 1994). 앞으로 핵가족화가 더욱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남편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유영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남편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예상 수유방법

조사대상자 중 3개월 이상 모유영양을 하겠다고 답한 학생을 모유영양선택군으로 하고 인공영양을 선택하였거나 3개월 미만을 모유영양을 하겠다고 답한 학생을 인공영양선택군으로 구분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자 비율에서 모유영양선택군이 54.8%로 나타났고,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연숙과 황계순(1992)은 어머니들이 모유영양의 우수성은 알면서도 모유영양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고, 노희경(1995)도 고학력 어머니들을 조사한 결과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와 지식이 실제 모유영양을 실천하는 행동에는 연결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표 4>에 나타난 예상 수유방법의 선택이 모유영양의 실천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예상 비율이 학생들이 모유영양을 선택하고 개시하는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Novotny 등(1994)은 모유영양을 하는 수유부의 66%가 임신전에 수유방법을 결정하였고 임신전 수유방법의 결정이 모유영양율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안홍석 등(1995)은 3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실천한 군과 3개월 이전에 모유수유를 중단한 군 간의 유일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요인이 분만전 계획한 모유영양의 실시기간이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임신기간 중에 모유영양을 오래 실시하겠다고 계획한 어머니일수록 모유영양의 실천이 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McCabe(1982)도 계획한 수유기간이 길수록 모유영양 실천율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예상 수유방법은 모유영양의 선택 및 개시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었다.

<표 4> 예상 수유방법

				N(%)
	남	여	계	$\chi^2$
모유영양	90(59.2)	77(50.3)	167(54.8)	2.429
인공영양	62(40.8)	76(49.7)	138(45.2)	NS
계	152(100)	153(100)	305(100)	

NS : Not significant at  $\alpha=0.05$ .

#### 5.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매체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을 얻는 매체를 조사한 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을 얻는 매체는 남,녀 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은 신문, 잡지를 통하여 가장 많은 지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부모님, 친구 그리고 TV, 라디오의 순서였다. 반면 여학생은 부모님, 친구로부터 지식을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이 TV, 라디오 그리고 신문, 잡지의 순서였다.

<표 5>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매체

	N(%)			$\chi^2$ 값
	남	여	계	
고교 교과과정	5( 3.3)	22(14.4)	27( 8.9)	
부모님·친구	34(22.4)	59(38.6)	93(30.5)	32.987
TV·라디오	32(21.1)	33(21.6)	65(21.3)	
신문·잡지	53(34.9)	29(19.0)	82(26.9)	p=0.0000
기타	28(18.4)	10( 6.5)	38(12.5)	
계	152(100)	153(100)	30(100)	

여학생의 경우 고교 교과과정을 통해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답한 비율이 14.4%에 불과한 것은 <표 2>에 나타난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단지 2개의 항목에서만 정답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교 교과과정에서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TV나 신문등의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이고도 책임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예상 수유방법에 관련되는 요인들의 비교 분석

### 1)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예상 수유방법에 따른 지식 및 태도 점수를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에는 <표 2>에 나타내었던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10개 문항을 일반적인 지식(1,7항), 어머니에 관한 지식(2,3,4,6항), 아기에 관한 지식(5,8,9,10항)으로 분류하여 예상 수유방법에 따른 비교를 나타내었다. 또한 총 지식 점수와 인지된 지식에 관하여도 예상 수유방법에 따라 비교하여 보았다.

<표 6>의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에서 모유영양선택군이 모유영양에 관한 모든 지식 영역에서 높은 점수분포를 보였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양지식을 제외한 모든 지식 항목의 점수에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에 관한 영양지식 및 총괄적 영양지식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모유영양의 선택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유영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모유영양이 어머니

<표 6> 예상 수유방법에 따른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및 태도의 비교

평균 ± 표준편차

	남			여		
	모유영양	인공영양	t-값	모유영양	인공영양	t-값
일반적인 영양지식	1.13 ± 0.48	1.02 ± 0.50	-1.46 NS	1.16 ± 0.43	1.05 ± 0.40	-1.54 NS
어머니에 관한 영양지식	2.01 ± 0.99	1.44 ± 1.10	-3.35 p=0.001	2.01 ± 0.90	1.68 ± 0.84	-2.35 p=0.020
아기에 관한 영양지식	2.32 ± 0.88	1.89 ± 1.01	-2.81 p=0.006	2.31 ± 0.73	2.12 ± 0.88	-1.48 NS
총괄적 영양지식	5.47 ± 1.47	4.34 ± 1.98	-4.04 p=0.000	5.48 ± 1.34	4.86 ± 1.40	-2.82 p=0.006
모유영양에 관한 인지된 지식	7.76 ± 2.06	6.24 ± 2.63	-3.97 p=0.000	7.73 ± 1.67	7.04 ± 1.89	-2.39 p=0.018
모유영양에 대한 태도	15.57 ± 1.98	14.87 ± 2.33	-1.98 NS	15.18 ± 2.17	13.74 ± 3.00	-3.42 p=0.001

NS : Not significant at  $\alpha=0.05$ .

쪽에 미치는 영향 및 아기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영양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O'Campo 등(1992)도 임신부 대상의 산전교육이 분만전 임신부가 수유양상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유영양 실시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관한 영양지식에서 모유영양선택군과 인공영양선택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표 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양교육 내용 중 특히 모유영양이 어머니측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이한 것은 정답 및 오답을 포함한 인지된 지식의 항목에서도 남,녀 모두 모유영양선택군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지된 지식이 많다는 것은 모유영양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모유영양의 선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모유영양에 대한 태도 점수도 여학생의 경우 인공영양선택군에 비해 모유영양선택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모유영양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모유영양 선택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모유영양에 대한 지식 점수와 태도 점수 사이에는 높은 정(+)

의 상관관계( $r=.3283$ )를 나타내고 있어서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이 태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Worthing-Roberts(1992)도 일반적으로 모유수유에서 실패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모유수유에 대한 부정적 태도라고 지적하였고, 여러 연구자들(Baisch 등, 1989; Black 등, 1990)도 태도의 변수들이 영아수유방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표 3>에 나타내었던 바와 같이 모유영양에 대한 태도의 점수 분포는 모유영양선택군과 인공영양선택군 모두에서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 건강에 대한 관심도 및 식습관

예상 수유방법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도 및 식습관의 비교를 <표 7>에 나타내었다.

모유수유의 결정은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욕망이 있고 건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관심이 많은 부모에게서 주로 나타난다고 지적되었고(이철 등, 1995), 수유방법의 선택시에 건강과 식사에 관련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태도 등의 인자도 작용한다(Dettwyler와 Fishman, 1992) 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표 7>에 나타난 결과는 남,녀 모두에서 모유

<표 7> 예상 수유방법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도 및 식습관의 비교

	남			여		
	모유영양	인공영양	t-값	모유영양	인공영양	t-값
건강에 대한 관심도	3.69 ± 0.91	3.81 ± 0.79	0.83 NS	3.58 ± 0.75	3.43 ± 0.88	-1.13 NS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	3.31 ± 0.87	3.37 ± 0.98	0.40 NS	3.32 ± 0.71	3.18 ± 0.84	-1.11 NS
식사의 규칙성	13.20 ± 3.31	12.81 ± 3.00	-0.75 NS	13.70 ± 2.93	13.49 ± 3.06	-0.44 NS
식사의 균형도	19.63 ± 4.84	19.74 ± 5.20	0.13 NS	20.88 ± 4.50	21.12 ± 4.64	0.32 NS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19.77 ± 3.38	19.21 ± 3.33	-1.00 NS	19.82 ± 2.84	19.75 ± 2.72	-0.15 NS
건강을 위한 식생활	6.54 ± 1.94	6.74 ± 2.06	0.60 NS	9.01 ± 0.84	8.95 ± 0.91	-0.47 NS

NS : Not significant at  $\alpha=0.05$ .



영양선택군과 인공영양선택군 사이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 정보에 대한 관심도, 식사의 규칙성, 식사의 균형도,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그리고 건강을 위한 식생활의 항목으로 조사된 모든 점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학생들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식습관은 수유방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요인들에 따른 예상 수유방법의 비교를 <표 8>에 나타내었다. 여학생이나 남학생 모두에서 가족형태, 종교, 영아기 수유방법,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 매체 등의 항목은 모유영양선택군과 인공영양선택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거지의 경우에는 모유영양선택군과 인공영양선택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모유영양선택군에서 주성장지가 농촌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 결과는 농촌지역의 모유영양율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송요숙, 199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조사대상자 자신의 영아기 수유방법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모유영양선택군에서 인공영양으로 자란 학생보다 모유영양으로 자란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James 등(1994)은 10살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아기에 모유수유를 받은 어머니에게서 모유영양율이 더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위의 결과들은 모유영양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어린시절 부서의 사회화로 부터도 유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집단에서 모유영양의 선택을 높일 수 있는 영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남녀 대학생의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과 태도 및 모유영양의 선택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으로는 어머니와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상 수유방법의 비교

		남				여				N(%)
		모유영양	인공영양	계	$\chi^2$ 값	모유영양	인공영양	계	$\chi^2$ 값	
주거지	도시	73(55.3)	59(44.7)	132(100)	6.342 p=0.0118	65(47.4)	72(52.6)	137(100)	4.351 p=0.0370	
	농촌	17(85.0)	3(15.0)	20(100)		12(75.0)	4(25.0)	16(100)		
가족형태	핵가족	75(58.1)	54(41.9)	129(100)	0.405 NS	71(50.7)	69(49.3)	140(100)	0.099 NS	
	확대가족	15(65.2)	8(34.8)	23(100)		6(46.2)	7(53.8)	13(100)		
종교	기독교	17(50.0)	17(50.0)	34(100)	2.702 NS	19(54.3)	16(45.7)	35(100)	2.954 NS	
	불교	23(69.7)	10(30.3)	33(100)		18(62.1)	11(37.9)	29(100)		
	천주교	10(48.8)	7(41.2)	17(100)		11(47.8)	12(52.2)	23(100)		
	기타·없음	40(58.8)	28(41.2)	68(100)		29(43.9)	37(56.1)	66(100)		
영아기 수유방법	모유영양	78(61.4)	49(38.6)	127(100)	1.557 NS	64(51.6)	60(48.4)	124(100)	0.433 NS	
	인공영양	12(48.0)	13(52.0)	25(100)		13(44.8)	16(55.2)	29(100)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매체	교과 교과과정	2(40.0)	3(60.0)	6(100)	1.598 NS	11(50.0)	11(50.0)	22(100)	6.035 NS	
	부모님·친구	19(55.9)	15(44.1)	34(100)		34(57.6)	25(42.4)	59(100)		
	TV·라디오	18(56.3)	14(43.8)	32(100)		14(42.4)	19(57.6)	33(100)		
	신문·잡지	34(64.2)	19(35.8)	53(100)		16(55.2)	13(44.8)	29(100)		
기타	17(60.7)	11(39.3)	28(100)		2(20.0)	8(80.0)	10(100)			

NS : Not significant at  $\alpha=0.05$ .

아기의 유대관계에 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모유영양의 아기쪽 장점은 비교적 잘 알려졌는데 비해 어머니쪽의 장점은 정답율이 낮았다.

2. 모유영양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 보다 긍정적인 응답율이 낮았고, 남학생의 태도가 여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이었다.

3.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에서 남녀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교 교육과정은 지식의 전달매체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4. 3개월 이상의 모유영양을 계획한 응답자가 54.8%였으며,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과 태도가 모유영양선택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가 농촌인 학생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 보다 모유영양의 선택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대학생층에서 모유영양의 선택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 모유영양에 관한 지식과 태도가 예상 수유방법의 선택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올바른 영양지식을 이해시키면 긍정적인 태도 및 수유방법의 선택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영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모유영양에 대하여 남학생들의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던 점은 남학생에게도 영양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모유영양의 선택과 실천에서 남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김기남, 이경신(1996), 남녀 대학생의 영양지식, 식태도 및 식행동, 지역사회영양학회지. 1(1), 89-99.

김미경(1990), 남녀 대학생의 모유수유와 인공수유에 대한 인식정도의 비교연구, 최신의학. 34(3), 99-105.

김화영(1984),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7(3), 178-184.

노희경(1994), 광주지역 영유아의 영양실태, 한국영양식품학회지. 23(1), 48-54.

노희경(1995),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한국

인과 그 지역주민의 영유아 수유실태에 관계된 요인들의 분석비교,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5), 475-483.

- 송요숙(1991), 우리나라에서의 영아의 수유 및 이유 보충식 급식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영양학회지. 24(3), 282-291.
- 안홍석, 배현숙, 김수연(1995), 모유영양의 실시시기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사회행동적 요인 분석, 한국영양학회지. 28(4), 331-344.
- 엄영남, 김은미, 이송이, 조미경, 박인영(1992), 건강을 위한 영양진단 전산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영양사회 학술대회.
- 이민숙(1984), 여고생의 모유수유와 인공수유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연숙, 황계순(1992), 서울지역 여성의 영아영양법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7(2), 97-103.
- 이철, 박민수, 정영미, 주혜정, 김광문, 한동관(1995), 영아의 지능과 운동발달에 모유수유와 인공수유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아과. 38(3), 289-295.
- 정귀영, 이근(1983), 모유 실패의 원인, 소아과. 26, 527-533.
- Baisch, M., Fox, R., Whitter, E., & Pajewski, N.(1989), Comparison of breast-feeding attitude and practices: low-income adolescents and adult women, Matern. Child. Nurs. J. 18, 61-71.
- Black, R., Blair, J., Jones, V., & Durant, R.(1990), Infant feeding decisions among pregnant women from a WIC population in Georgia, J. Am. Diet. Assoc. 90, 255-259.
- Dettwyler, K. A., & Fishman, C.(1992), Infant feeding practices and growth, Annu. Rev. Anthropol. 21, 171-176.
- Fomon, S. J.(1987), Reflections on infant feeding in the 1970s and 1980s, Am. J. Clin. Nutr. 46, 171-182.
- James, D. C., Jackson, R., & Probart, C. R.(1994), Factors associated with breast-feeding prevalence and duration among international

- students, J. Am. Diet. Assoc. 94, 194-196.
- MaCabe, T. L.(1982), The assessment of factors that affect the duration of lactation of women residing in Eastern Connecticut; A practical model,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Novotny, R., Kieffer, E. C., Mor, J., Thiele, M., & Nikaido, M.(1994), Health of infant is the main reason for breast-feeding in a WIC population in Hawaii, J. Am. Diet. Assoc. 94, 293-297.
- O'Campo, R., Faden, R. R., Gielen, A. C., & Wang, M. C.(1992), Prenatal factors associated with breast feeding duration: recommendations for prenatal interventions, Birth. 19, 195-201.
- Robinson, J. B., Hunt, A. E., Pope, J., & Garner B.(1994), Attitude toward infant feeding among adolescent mother from a WIC population in northern Louisiana, J. Am. Diet. Assoc. 94, 1311-1313.
- Tuttle, C. R., & Dewey, K. G.(1994), Determinants of infant feeding choices among Southeast Asian immigrants in northern California, J. Am. Diet. Assoc. 94, 282-286.
- Worthing-Roberts, B. S.(1992), Lactation and human milk. In: Williams, S. R., & Worthington-Roberts, B. S., 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148-213, Mosby Year Book.